

익산, 시정 만족도 긍정 86%

2021년 81%서 5%p 올라... 다이로움 지역화폐 만족도 95.6%

익산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 다이로움과 딱거리 정책, 복지정책은 90% 넘는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주민 밀착형 사업이 시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연구소가 익산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정책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 85.9%가 긍정 평가를 내렸다.

이는 2021년 시정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의 긍정 평가 비율 81.1%보다 4.8%p 오른 수치다.

올해 조사에서는 익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시책 10건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전체 항목

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지역화폐 '다이로움'은 민생 경제 활성화에 이끄는 대표 효과 정책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로움은 95.6%의 만족도를 보이며 전체 항목 중 가장 인기 있는 정책으로 뽑혔다.

마을 전자 상거래 등 '딱거리' 선순환 정책은 95.1%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포함한 '다이로움 행복정책'은 94.2%를, 이웃에 돌봄단·나눔공간 등 '복지정책' 역시 92.1%의 긍정 평가를 얻었다.

이 같은 결과는 어려운 경제·산업

여건 속에서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달려온 익산시의 다양한 정책이 시민 만족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본격 운영을 시작한 익산창년 시청에서 열리는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딱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꾸린 이웃애(愛)돌봄단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가 이달 소용동에 위치한 군산인공암벽장에 국제규격의 볼더링장(L43m x H13m)을 선보인다.

국제 규격 인공 암벽장 조성

군산인공암벽장, 스포츠클라이밍 볼더링장 신축

군산시가 이달 소용동에 위치한 군산인공암벽장에 국제규격의 볼더링장(L43m x H13m)을 선보인다.

군산 인공암벽장은 그동안 국제규격의 리드벽과 스피드벽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볼더링장 시설이 없어 대회유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총 12억5,000만원을 들여 볼더링장을 추가 조성함에 따라 명실공히 국제규격의 스포츠클라이밍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시는 국제규격의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을 활용해 국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클라이밍의 성지로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장 시기에 맞추어 오는 16~17일 양일간 전국 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스포츠클라이밍 볼더링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는 (사)대한산악연맹 주최·전라북도산악연맹 주관으로 전국 남녀 중등·고등·일반부 선수들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게 된다.

시 관계자는 "스포츠클라이밍 국제대회 유치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도심 속 신흥공원 다이로움 시민정원 조성

익산시는 14일 신흥공원을 시민 모두의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 '다이로움 정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녹색도시환경국장을 단장으로 문화관광산업과, 산림과, 기술보급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로 구성돼 매월 회의를 추진하고, 시민 서포터즈와 자원위원을 구성해 신흥공원의 아름다운 정원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민 서포터즈는 조경학과 학생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며, 정원 조성에 직접 참여하고 홍보 활동을 펼친다. 여기에 전문 교수, 가든 디자이너, 조

경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위원들의 전문적 의견을 수용해 신흥공원을 아름다운 시민정원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추진단은 내년에 조성할 신흥공원 내 꽃 식재와 콘서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익산시 대표축제인 국화축제와 연계해 관광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미중물로 도심에 위치한 신흥공원을 시민 누구나 찾아오는 모두의 정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대학·지자체 협력... 지역 위기 극복

익산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호남·제주권 성과공유회 개최

익산시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을 통해 지방 소멸, 지역 대학 위기를 극복할 발판을 마련한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기초자본체와 전문대가 중심적 역할을 맡아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사업이다.

시는 14일 원광보건대학교 WM관 4층 컨벤션홀에서 2023학년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호남·제주권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HIVE 사업 참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컨소시엄 간 교류 활성화 및 상호협력체제를 강화했다. 15일 행사는 웨스턴라이프호텔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원광보건대 의 호남·제주권 9개 대학 HIVE 사업단장 및 실무진 지자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성과공유회는 HIVE 사업 컨소시엄 우수사례 공유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추진계획과 핵심성과지표, 자율성과지표 관리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며 HIVE 사업의 비전 제시하는 장이었다.

올해 2차년도에 맞이한 익산시, 원광보건대학교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은 지역 특화분야를 연계한 창업 환자식(메디푸드), 가정간편

환자식 식품위생관리사 재가노인 방문 돌봄 특화, 헬스케어 움직임 전문가 등의 직업 교육과정 발표가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본격화하는 상황에 그린바이오 식품 교육과정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익산시와 원광보건대학교의 HIVE 사업은 지난 7월 1차년도 평가에서 호남·제주권 컨소시엄 최고등급(A등급) 달성으로 인센티브 2억원을 확보했다. 사업비는 국비 51.3억원, 시비 5.7억원을 포함한 총 57억으로 2023년까지 국비 33.3억 원, 시비 3.7억 원이 컨소시엄인 원광보건대학교로 지원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문화유산 분야 전국 최고 3관왕

익산시가 올해 문화유산 분야 각종 사업 평가에서 3관왕에 오르며 대한민국 대표 고도의 위상을 드높였다.

시는 '2023년 문화유산 활용 분야'에서 익산문화재 아행의 우수 지자체 선정과 '문화유산 보존관리 평가'에서 문화재정상을 각각 수상했고, 문화영향평가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아 3관왕 쾌거를 이뤘다.

시는 14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

무대에 올랐다. 시는 전국 4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문화유산 아행 부문 평가에서 '2023 익산문화재 아행 - 백제왕궁은 살아있다'로 최상위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익산문화재 아행은 올해 백제왕궁 후원까지 범위를 넓히고 획기적 변화로 진행되어 짜임새 있는 구성과 질 높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 야경으로 방문객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평가에서 익산은 대한민국 대표 4대 고도(故都)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재 관리로 문화재정상을 수상했다. 익산시는 문화재를 우수하게 보존, 관리한 인천(중구), 예산군과 함께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6일에는 2023 문화영향평가에서 도농복합도시의 지역별 특화전략으로 지역에 문화적 가치 확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지역 소식통

군산시, 새만금 사업 성공 시민 소통 포럼 개최

군산시는 전북의 미래를 짊어질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가장 큰 이슈인 군산새만금신항의 발전 방안과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포럼을 오는 20일과 21일 각각 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일 열리는 '군산새만금신항 전략 포럼'은 (사)한국해운항만 학술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내·외 항만 운영 사례 분석과 글로벌 식품 전략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21일 열리는 '군산새만금 바로알기 포럼'은 합리적인 관할 구역 결정에 대한 방안과 방조제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적 문제점 분석 등을 권위자들과 다수 초청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군산새만금신항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전략을 정립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내년 우리가족숲 참여가족 모집

군산시는 2024년도 우리가족숲 참여가족 모집 접수를 오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되는 우리가족숲 조성사업은 신흥동공원 유희부지 내 행복한 우리가족 기념일을 더 특별하게 기념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나무를 갖고 기르는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가족 누구나 접수 가능하며, 가족단위 대표자 1인이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청 산림복지과로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가족 선정은 내부심사를 통해 30가족을 선정 후 2024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림복지과(☎454-4452)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내년도 30가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점차 확대해 군산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 및 이산화탄소 감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기자